

데스크 시국



채희중
편집부국장 겸 사회부장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전공자 등 언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방송 관련 과목을 통해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에 대해 배우게 된다. 30년의 세월 탓인지 대학 시절 강의 중 기억나는 내용은 거의 없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뇌리에 각인돼 있는 게 있다. '방송학개론'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서 예로 든 BBC의 객관적인 보도 태도가 그것이다. BBC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을 보도하면서 '아국 군인'을 '국군'이나 '우리 군'으로 부르지 않고 '아르헨티나군'과 같은 격인 '영국군'으로 불렀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와 보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BBC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신뢰 있는 보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대학교 2학년이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속임수 보도'로 위기 몰린 BBC

실제로 중학생 때 국내 TV를 통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시절 우리 언론은 확연히 영국군 편에서 보도했었다. (5·18항쟁 2년 후의 전쟁 뉴스라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하여튼 영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에 어른들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BBC의 태도는 쉽게 이해

신문·방송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

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상관없는 저 멀리 한국 언론마저도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영국 편을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BBC의 방송 태도에 대해 당시에는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유별나다'란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럼 지난 1982년 포클랜드를 놓고 벌어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당시 언론 보도를 개괄해 보자. 그 해 4월 아르헨티나가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무력 점령하자 영국은 곧바로 전시 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이 '제국의 응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는 등 보수언론은 연일 애국식 고취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BBC는 전쟁 기간 동안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영국 핵잠수함이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했을 때도, 영국 구축함이 아르헨티나 전투기의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을 때도, 똑같이 팩트만을 전달했다. 이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침략자와 조국을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여기에 "왜 BBC는 우리 군대를 우리 군(our force)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국군(British force)이라고 부르느냐"며 BBC를 향해 '반역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중에 공개된 기록에 의하면 대처 총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BBC가 '이적 행위'를 하고 화를 내며 '국유화'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소장 중인 대처의 메모에 따르면 당시 대처는 핵전쟁 시에나 발동하는 긴급조치를 동원해 BBC를 공영에서 국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공정성 있는 보도로 국민으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던 BBC지만, 지난 1995년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인터뷰 성사를 위해 '왕실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이를 믿게 할 조작된 서류 등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이 26년 만에 드러났다. 이로 인해 BBC는 수신료 동결·삭감 논의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강한 쇄신 압박을 받는 등 100년 가까운 역사와 위상이 순식간에 추락하고 있다.

우리 언론도 국민 신뢰 회복 시급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얼마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사장 선임에 시민사회 참여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진행돼 온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일 것이다.

요즘엔 공영방송도 상업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대형 신문사들도 정치적 편향성과 상업성을 좇아 한쪽 면만을 보는 '유튜브식'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성 대신 좌우 이념을 잣대 삼아 특정 정당만을 편들고, 지역을 나눠 갈등을 부추기며, 입맛에 맞는 대선 후보만을 지지하는 등 언론이 방향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뉴스 대신 유튜브를 보고 사회 문제를 판단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문에 나왔던데" "방송에 보도됐어" 하면 누구나 믿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의 뉴스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던 일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됐다. 매체 변화의 흐름도 있었지만 언론이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공정성을 지키려는 싸움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은폐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2021년 보건복지부 전국 보건기관 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256개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가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다섯 개 구가 각각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의 보건소장 중 의사가 99명, 보건직 공무원이 155명이다. 의사 보건소장이 더 적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보건소장이 모두 의사이다. 큰 도시는 비교적 의사 보건소장이 많은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광주광역시는 서구·남구·북구·광산구는 보건소장이 의사이고 동구만 의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처음 보건소법을 제정하였다. 그때 '보건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로 정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대도시 큰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보건소 또한 거의 없었다.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한 공중보건의 제도가 1978년 시작되었고 그 무렵부터 보건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1975년 보

준비된 전문가를 보건소장으로

건소법에서 '보건소장 자격'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보건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추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시행령을 고쳤다. 2006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2015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었다. 현행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장에 임용에 대한 규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보건소장의 자격은 의사를 우선으로 해 왔다.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진료 영역을 넘어 만성질환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업과 의료기관의 지도와 관리,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보건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건소의 전문적인 역할과 범위가 더 넓어져서 의학과 의료사회학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 경영인 보건소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선별 진료,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그 전문적인 역할

이 더욱 중요해졌다. 시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장은 대부분 의사가 맡고 있다. 의료의 전문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임상 진료과들의 의견 조율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건소 조직 문화에 융화되지 못한 채 보건소의 사회적인 순기능까지 후퇴시킨 보건소장이 있었고, 전 사회적인 의사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의 미성숙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함께하고 이끌어갈 전문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의료의 의학적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었으며 사회학적 인식의 폭 또한 성숙해졌다. 이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공의료를 위해 의료의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으로 사회성까지 준비된 의사가 늘어났다.

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보건소 조직 내의 승진으로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을 임명한다면 다른 조직 문화와 충돌할 수 있고 다른 조직과의 협업 체계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이끌어 갈 보건소장에 준비된 전문가를 찾아 임용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몫이라 생각한다.

남도 의병을 기억하며

항'이라고 불린다. 의병장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거병할 당시의 결연한 마음 자세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삼부자가 모두 순절해 이름이 높은 충렬공 고경명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쓴 격문에서 "적진에 뛰어 들어 용감하게 적장의 목을 베고 깃발을 빼앗은 자는 바로 우리 도 사람이 아니었던가. 근년에는 임금을 섬기는 대의를 잊고 제 몸과 처자들만 보존하는 데 급급한데, 이는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제 조상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주 출신인 문열공 김천일은 격문에 "구차히 살 것을 방자해 비겁하게 구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 우리는 비록 무명 산골짜기에서 죽을지라도 왜놈과 싸우다 죽자"고 강조했다. 모두가 말렸던 진주성 입성을 앞두고는 "내 고장,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힘 뿐이다"며 만류를 뿌리치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 나서 장렬히 전사했다.

장성 의병장 김경수는 두 아들이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비록 너희들이 살아오기를 바랐으나 할 일을 다 하고 죽었으니, 젊음이 아깝지 않다. 외롭지 않게 순절하였으니, 반드시 뜻을 같이할 사람이 있으리라"는 뜻의 한시를 남기기도 했다.

임진왜란 의병들은 그나마 나라로부터 지원도 받고 대규모 작전은 관군과 함께했으며 후대에 그 위업이 상당 부분 전해졌으나, 한말 의병들은 그보다 훨씬 열악했다. 일제가 장악한 구한말 정부는 의병 해산을 중용

했으며, 때로는 체포에 앞장서기도 했다.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면서 아녀자와 어린 자녀, 형제까지도 갖은 고초를 당했다.

일본군을 발발 떨게 하였던 한말 의병장 오성술은 1910년 교수형을 앞둔 최후 진술에서 "도둑놈이 주인더러 도둑이라니 할 말이 없구나. 하늘과 땅에는 의리가 가득하고, 대한제국에는 충신열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너희 일본 정부에 알려 주기 바란다"고 통렬히 꾸짖었다.

전남도가 남도 의병의 정의로운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고 계승하고자 의병 유물 수집은 물론 연구·전사·교육하는 의병 박물관을 나주시 공산면 일원에 건립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고, 계획한 대로라면 오는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1975년부터 2년간 연재하였던 '의병열전'을 재조명하는 '신(新)의병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현재를 살며 미래를 이어갈 후손들이 보다 쉽게 이들 의병장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의병장 52명과 함께 무려 4200여 명이 나오는 의병 이야기가 남도의 또 다른 기록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선택한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일제강점기 의병장들의 이름과 발자취를 찾아 오늘이 있게 해 준 의병들의 정신을 기억했으면 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社說

백신 접종자 일상 회복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일상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앞으로 직계 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인센티브 대상자는 총 374만6천 명인데, 이들은 지난달 17일까지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하고 전날까지 2주간 '면역 형성' 기간을 거쳤다.

현재 직계 가족은 8명까지만 모임 수 있다. 한데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 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임 수 있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고,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열 수 있으며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백신 접종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바야흐로 코로나로 갇혀 있던 우리의 일상 회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결코 방심하거나 방역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는 인구의 70%인 국민 3천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 이후에나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까지는 접종을 마쳤다 해서 마스크를 내던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무너지는 광주 충장로 상권 되살릴 수 없다

한때 호남권을 대표하는 쇼핑·패션의 중심지였던 광주시 동구 충장로 상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임대료가 크게 낮아지고 관리금마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빈 상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 충장로 상가의 전체 공실률이 최근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가 건물 2층 이상의 공실률은 40% 가까이 치솟았고, 빈 가게가 거의 없었던 1층 상가마저 공실률이 15~20%에 이르고 있다. 그 영향으로 1억~5억 원에 달했던 충장로 1~2가 핵심 상권의 관리금은 거의 사라졌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1층 상가는 역대 웃돈을 얻어주고도 임월조차 힘들었다는 게 상인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고 주말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일대 곳곳에는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우체국

에서 불과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가게 열 곳 가까이가 현재 폐업 상태다. 빈 가게 창문에는 '관리금 없음, 임대 문의'라고 적힌 메모가 곳곳에 나붙어 있다.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를 이전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췄지만 세입자들은 그레도 수치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장로 상권의 쇠퇴는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유동 인구 감소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그렇다고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충장로 상권은 1~3가의 경우 패션·뷰티 중심으로 매장이 형성돼 있고 4~5가는 양복점·제화점·금은방·한복점·이불점 등 오래된 가게(老舖)들이 많다. 지금도 젊은 이들과 중장년층이 즐겨 찾는 이유다. 따라서 광주시와 동구청은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행남자기는 국내 최초의 '생활 도자기' 브랜드로 1942년 목포에서 설립된 행남사가 모태다. 회사명이 행남사와 행남자기로 자주 바뀌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명가였기에 그 브랜드 파워는 막강했다. '행남' (杏南)사의 로고는 살구나무로 '남' 쪽에서 불어오는 '봄'을 상징한다.

국내 도자기 업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은 거의 행남사가 가지고 있다. 1953년 국내 최초로 커피 잔 세트를 생산했고 1963년에는 홍콩에 처음으로 수출 길을 뚫었다. 1974년 스톤웨어를 개발해 미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수출했고 1985년에는 도자기 플

도자기 업계 최초로 위생안전 품질인증인 HSMARK를 획득했다.

출시하는 제품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50년대에는 분차이나인 '홍장미 세트'가 인기를 끌었고 60년대에는 양식기로 혼수시대를 열었다. 70년대는 인테리어 커피 세트를 출시했고 80년대나 화려한 문양의 골드에 백금이 조화되는 '홈세트 킹'은 상류층의 인기 아이템이었다. 90년대 '골든로즈'와 2000년대 '경복궁 7첩'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명작이었다.

행남사의 식기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에 사용됐으며 12월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공식 만찬에도 올랐다.

하지만 창업주 4세로 이어진 경영권이 2015년 넘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6년간 주인이 다섯 번이나 바뀌면서 본업과 상관없는 영화·식품사업에 손을 댔다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행남사는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7일 증권시장에서 사라진다. 스러져 가는 향토 기업의 뒷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아리다.

/정말성 제2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남도 의병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본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말 등 국가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거병한 이들은 관군을 넘어선 용맹함과 목숨을 내던지는 처절함으로 지역과 나라에 헌신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무기·군량·정보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격문을 띄워 군대를 모아 외적과 맞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의인이었다. 누가 봐도 이기기 어렵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가문까지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전쟁터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진실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관군이 아닌 의병 10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전라도 사람이었다. 한말 일제와 교전한 의병의 45.5%인 1만 7579명이 전남 출신이었다. 전남은 예로부터 충절의 땅이자 의로운 땅 '의